

2013. 9. 20.

#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



## 주간 심층이슈

### 『2013년 여름 박스오피스』

#### ◎ 작성취지

- 2013년 여름 박스오피스를 전체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할리우드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향후 영화산업을 전망하고자 함

#### ◎ 작성순서

- 들어가기
- 2013년 여름 박스오피스 성적 정리
-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흥행 참패
- 2013년 여름 할리우드의 전반적 평가
- 새로운 배급 전략 및 기존 전략 수정의 필요
- 정리 및 시사점

### 1. 들어가기

- 일반적으로 할리우드의 여름시즌은 5월 첫주부터 본격적인 가을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인 Labor Day(미국의 노동절로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주말까지로 집계됨
- 특히 올 여름 시즌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미디어를 통해 큰 주목을 받음
- 첫째, 제작비가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블록버스터 개봉작 수가 예년에 비해 5편 정도 많은데 순제작비는 물론, 광고 및 배급비용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뜻이며, 회수할 금액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임

- 둘째, 대표적인 흥행작은 <아이언 맨>으로 전 세계에서 9억 1,200만 달러, 미국 내에서 4억 8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나 실제로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성공이라고 할 만한 성적을 거둔 영화는 전체 중 절반에 그쳤으며, 선전할 것으로 기대했던 영화들 중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영화도 있음
- 셋째, 이 같은 블록버스터의 흥행실패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했다 점에서 흥미를 모으고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를 비롯한 영화감독과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2013년 여름을 두고 공통적으로 블록버스터가 적게는 4편, 많게는 6편까지 흥행에서 참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넷째, 또한 그 예견이 적중함에 따라 새로운 박스오피스 흥행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
- 다섯째, 흥미로운 점은 그 예견이 맞아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여름 전체 박스오피스 흥행의 신기록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임
- 여름 박스오피스 성적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11년의 44억 달러와 비교할 때 동기간 대비 12% 가량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최고 여름 박스오피스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론 레인저>와 <아이언맨 3>  
[출처: Google Images]

## 2. 2013년 할리우드의 여름 박스오피스 성적 정리

### ○ 상위 10편의 제작비와 미국 및 해외 성적 비교

- 다음은 2013년 5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The Wrap에서 집계한 2013년 여름 박스오피스 상위 10편 영화들임
- 여름 시즌에 대한 최종 집계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에 집계한 미디어와 그 정산 방법에 따라 순위 및 포함된 영화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Top Ten Movies So Far This Summer

From May 3 through July 22

TITLE	STUDIO	WEEKS IN RELEASE	DOMESTIC GROSS	WORLDWIDE GROSS
Iron Man 3	Disney	11	\$407M	\$1.21B
Man of Steel	Warner Bros.	6	\$285M	\$635M
Despicable Me 2	Universal	3	\$279M	\$588M
Monsters University	Disney	5	\$250M	\$534M
Fast & Furious 6	Universal	8	\$237M	\$713M
Star Trek Into Darkness	Paramount	9	\$225M	\$449M
World War Z	Paramount	4	\$188M	\$457M
The Great Gatsby	Warner Bros.	10	\$149M	\$330M
The Heat	Fox	3	\$130M	\$146M
Now You See Me	Summit	7	\$114M	\$200M

2013년 5월 3일부터 7월 22일 동안의 톱 10 영화  
[출처: The Wrap]

- 위 순위의 10편의 영화 중 <아이언맨 3>, <맨 오브 스틸>, <슈퍼배드 2>, <몬스터 유니버시티>,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스타트랙 다크니스>는 모두 최근 할리우드 박스오피스의 흥행 기록을 세워 온 영화의 속편, 슈퍼 히어로物, 리메이크작 등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음

- 이 카테고리의 특징은 흥행가능성이 높아 스튜디오가 해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논리를 제공함
- 2014년과 2015년 여름 개봉 예정된 영화들의 목록에도 <어벤져스> 속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속편, <캐리비안의 해적들 5>, <분노의 질주 7>, <트랜스포머 4> 등의 속편 및 슈퍼히어로물이 포진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카테고리에 대한 스튜디오의 신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저조한 흥행 성적을 기록한 하위 5편의 영화들**

- 다음은 2013년 개봉 영화 중 가장 흥행이 저조하였던 5편의 순위임
- 할리우드 영화의 독창성(originality) 부족에 대한 반복된 지적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음

**Least Profitable Movies of Summer**

Movie	Studio	Gross	Cost
		\$56M	\$130M
		\$196M	\$215M
		\$125M	\$150M
		\$135.7M	\$135M
		\$244M	\$130M

올 여름 저조한 흥행을 기록한 영화

[출처: The Wrap 및 Box Office Mojo]

- 이 다섯 편의 영화의 공통점은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슈퍼히어로물, 속편 및 전편, 또는 리메이크물이 아닌 독창성이 강조된 영화들이라는 의미임

- 이에 스튜디오가 독창적인 영화들보다 흥행이 보장되는 리메이크, 슈퍼히어로, 속편 및 전편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하고 기대하는 것임
-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더 이상 스타 감독의 이름이나 스타배우의 이름이 흥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임
- <R.I.P.D.>는 제프 브리지스, 라이언 레이놀즈, 케빈 베이컨 등이 출연했으며, <론 레인저>는 조니 뎁, 아미 해머 출연에 고어 바빈스키 감독, 제리 브룩하이머 제작이라는 디즈니 최고의 흥행카드를 가지고도 흥행에 참패하였음
- <캐리비안의 해적들>과 같은 새로운 영화 시리즈의 시작을 기대했던 디즈니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것임
- 비록 <R.I.P.D.>는 원작이 있으며 <론 레인저>가 라디오 및 TV 시리즈의 리메이크이기는 하지만, 현대 관객에게 생소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스크린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강조한 영화로 간주됨
- 이는 독창성을 강조한 영화가 흥행하기 어렵다는 2013년 여름 성적에 대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채닝 테이텀을 선두에 세운 <화이트 하우스 다운> 역시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명성이 더 이상 관객의 지갑을 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고,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애프터 어스> 역시 제이든 스미스라는 차세대 스타 배우를 앞세우고도 흥행에 실패함

### 3.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흥행 참패

#### ○ 스티븐 스피버그의 ‘패러다임 붕괴론’

-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지난 2013년 6월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오직 금전적 흥행만을 좇아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는 스튜디오의 행태에 일침을 가한 바 있음
- 특히 이 패널 토크에서 스피버그가 언급한 ‘패러다임 붕괴론’ 은 그 뒤 여러 미디어에서 2013년 여름 박스오피스의 참패를 분석할 때 인용되고 있음
- 스피버그는 “적게는 3-4편, 많게는 6편 정도의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들이 흥행에서 줄줄이 참패할 것이며 그로 인해 기존의 배급

패러다임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고 말하며 최근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이 내놓은 영화들이 ‘영화의 프랜차이즈’ 를 노리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에 대한 배급 전략 역시 친편일률적임을 지적함

- 스피들버그가 언급한 “패러다임” 이란 스튜디오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이 예상되는 프랜차이즈성 영화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독특하고 개인적인 규모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들은 VOD(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용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블록버스터의 흥행 참패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해마다 눈에 띄는 흥행 참패작이 있었지만, 특히 올해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유난히 많았기에 이 같은 실패가 두드러진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음
- 이에 스튜디오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스피들버그의 견해에 반대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10편 중 5편이 흥행에 실패해도 나머지 5편의 흥행으로 스튜디오는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임

## ○ 영화 제작자 린다 읍스트의 ‘대재앙론’

- 제작자 린다 읍스트는 2013년 6월 30일 뉴욕매거진의 연예블로그인 Vulture.com과의 인터뷰에서 “4편 정도의 거대 블록버스터가 같은 시즌에 줄줄이 흥행 참패하는 것을 보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며 “대재앙이 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애프터 어스>, <화이트 하우스 다운>, <개구쟁이 스머프 2>, <엘리시움>이 첫 주 성적 3천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박스오피스에서 1억 달러 미만의 흥행성적을 냈으며 앞서 등장했던 <R.I.P.D.>과 <론 레인저>의 저조한 성적 역시 ‘대재앙론’ 의 예측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 제작자 린다 읍스트는 스피들버그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흥행전략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우선, 읍스트는 스튜디오들이 당분간 속편, 전편 및 리메이크 등의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는 안전한 옵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올 여름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영화들을 살펴보면 <아이언맨 3>, <맨 오브 스틸>, <분

- 노의 질주 6), <스타트랙 다크니스> 등 모두 프랜차이즈 영화들이기 때문임
- 또한 옵스트는 미국 내 흥행 성적이 스튜디오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비록 할리우드의 수입 중 미국 내 티켓 판매가 약 30%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함
- 이와 같은 티켓 판매가 유지되는 이유가 해마다 상승하는 티켓 가격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점점 증가하는 해외 수출 의존도를 고려해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함
- <퍼시픽 림>의 경우, 미국에서는 기대를 밑도는 수입을 올렸지만 해외에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속편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레드 2>와 <퍼시 잭슨 바다의 괴물>의 속편이 올 여름 개봉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해외에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옵스트는 흥행 참패가 이어질 때는 영화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배급 및 제작 전략을 수정해야할 때라고 지적하였음
- 다른 미디어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2013년 여름은 메가톤급 블록버스터가 유난히 많았는데, 특히 <월드워Z>, <애프터 어스>, <디스 이즈 디 엔드>, <엘리시움> 등의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음
- 비슷한 시각효과와 스토리를 매주 보러 극장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오히려 이와 다른 색채를 가진 장르의 영화들이 예상 외로 선전했던 것이 그 근거가 됨

#### 4. 2013년 여름 할리우드의 전반적 평가

##### ○ 올 여름의 할리우드, 참패인가 승리인가?

- 흥행 참패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47억 1천만 달러의 시즌 수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여름 흥행성적을 기록함
- 이는 작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고 여름 흥행성적으로 기록된 2011년의 44억 달러와 비교해서도 앞선 수치임
-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관람객수는 6.6% 상승한 5억 7,300명에 이르며, 티켓



- 가격의 상승 역시 최고 흥행기록을 수립하는데 큰 공이 되었음
- 흥행 신기록을 두고 승리했다고 하거나 실패한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많으므로 참패였다고 주장하는 등 말이 많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승리 또는 참패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많은 영화가 개봉되었으니 성공하는 영화가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자회수율이 낮은 영화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패로 봐야한다는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임
  - 올 여름 박스오피스가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개봉한 블록버스터 숫자가 전년 20편 수준에 대비해 23편에 이르며, 그에 투입된 비용은 전년 대비 53%나 증가했기 때문임
  - 미국 전국극장주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의 회장 John Fithian은 이번 여름의 극장 흥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하지만 많은 영화들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것에 대해 각각의 영화들이 적절한 타이밍을 만났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함

### ○ 2013 박스오피스의 진정한 승자는?

- 단순히 흥행수입 뿐만 아니라 제작비용까지 고려하여 비교할 때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 Most Profitable Movies of Summer

Movie	Studio	Gross	Cost	ROI
		\$81.7M	\$3M	25.7
		\$745.8M	\$76M	8.5
		\$167.9M	\$20M	7.4
		\$1.2B	\$200M	5
		\$782.5M	\$160M	3.8
		\$198M	\$42M	3.4

가장 수익률이 높은 영화  
[출처: The Wrap 및 Box Office Mojo]

- 위의 표는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로 순위를 매긴 2013년 여름 개봉작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영화 5편으로 <아이언맨 3>, <슈퍼배드 2>, <분노의 질주 6> 등 메가톤급 히트작 및 프랜차이즈물을 제외하면 호러 영화인 <더 펄지>, <더 컨저링>의 선전이 눈에 띈다
- 특히 <더 펄지>는 300만 달러, <더 컨저링>은 2천 1백만 달러라는 저예산으로 제작되어 각각 8천 1백만 달러, 1억 6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ROI가 매우 높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스튜디오들이 저예산 호러 영화를 블록버스터처럼 양산하지 않는 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며 호러 장르가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블록버스터의 틈바구니에서 배급 편성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편성을 받지 못할 경우 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극장에서의 흥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그럼에도 저예산 호러 장르는 앞으로도 블록버스터 일색인 극장가에 전략적으로 배급될 것이며, 실제로 내년에는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속편이 두 편

- 이나 개봉 예정에 있어 저예산 호러 영화가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 <더 펄지> 역시 속편 제작에 청신호를 받았음

## 5. 새로운 배급 전략 및 기존 전략 수정의 필요

### ○ 새로운 시나리오 분석 및 개봉 전략 수정의 필요성 제기

- 올 여름 일련의 박스오피스 흥행 실패를 두고, 미디어 리서치사인 Piedmont Media는 단순히 감독의 이름, 인기 장르, 인기배우의 명성에 기대어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룩 무어 역시 배급 전략의 변화 및 블록버스터 시즌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 올 여름의 흥행 실패는 동기간에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을 밀어 넣듯 뻘뻘하게 개봉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었음
- <헝거 게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의 마법사> 등은 차별적인 배급 전략을 통해 여름 시즌을 피해 개봉하고도 그를 웃도는 흥행 결과를 낳았던 대표적인 사례들임
- 그 외, 스튜디오 자체적으로 영화의 흥행을 분석하고 예상하는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블록버스터를 한 시즌에 몰아넣기 보다는 위험을 분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존재함

### ○ 안방 극장(Home Theater)의 중요성 증가

- 할리우드의 극장수입을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극장에 국한되지 않는 스크린의 확장으로, 점차 영향력 있는 극장이 되어가는 안방극장(Home Theater)에서 어떤 영화가 환영받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가 있음

- 할리우드는 전체수입의 약 30%를 극장 배급에서 충당하는데, 지난 10년간 미국 내 티켓 판매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극장수입 증가의 원인이 단지 티켓 가격 상승임을 감안할 때 현재 스튜디오가 유지하고 있는 여름 한정 블록버스터 배급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 한때 2차 판권 시장이 사라짐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것을 감안할 때, 할리우드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이 홈 비디오와 스트리밍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은 신선하다고 할 수 있음
- 전체 수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이르며, TV 네트워크나 케이블의 라이선스로 거두는 수입 비중 또한 28%로 큰 편임
-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리밍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www.netflix.com](http://www.netflix.com))와 아마존([www.Amazon.com](http://www.Amazon.com))이 스튜디오들 입장에서 “꼭 봐야하는 블록버스터”에 거대한 비용을 지급하며 판권을 따오는 데에 흥미가 없다는 것임
- 스티븐 스피버그의 ‘붕괴론’에 따르면, 스트리밍 시장은 블록버스터 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영화들이 수입을 올리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블록버스터에 큰 비용을 들이는 대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구비하려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전략은 스피버그의 VOD 대세론과 일맥상통함

## 6. 정리 및 시사점

- 2013년 여름 박스오피스 흥행에 대해서는 “상흔이 많은 승리” 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 올 여름이 역대 최고 흥행성적을 올렸음은 수치적으로 부인할 수 없지만 제작비 및 광고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낮은 영화들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 중에는 배우나 감독의 이름만을 믿고 흥행을 당연시 여긴 영화들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함
-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은 흥행실패가 전문가들에 의해 미리 예견되었다는 점이며, 같은 이유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에는 변화의 바람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극장 개봉전략에 대한 분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여름 한 시즌만으로는 이른바 “블록버스터” 라고 분류된 영화들을 소화하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함
-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이라는 말은 이제 점점 무색해질 것임
- 이 같은 극장의 흥행실패에 의해 중요성을 부각된 시장은 바로 스트리밍과 홈비디오와 연결된 홈시어터/홈스크린 시장임
- 스피들버그가 예견하고,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진행하고 있는 전략대로, 홈 스크린/홈시어터에서는 스튜디오가 지지하려는 블록버스터보단 개인적인 취향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화들의 투자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